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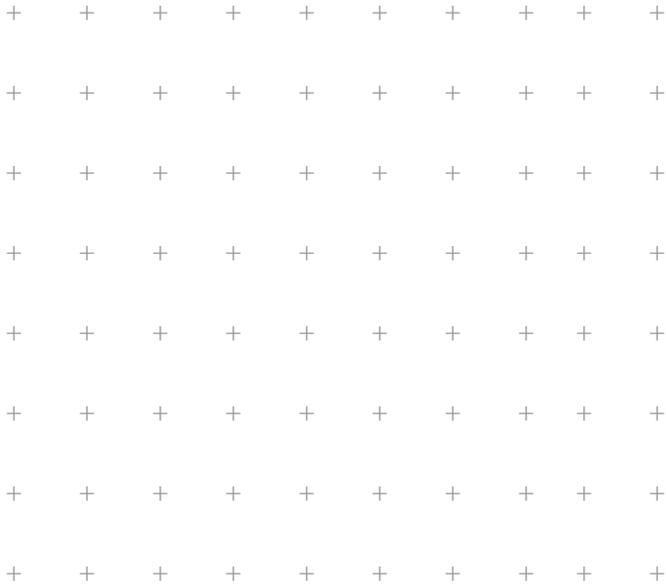
2016. 12. 28

집필자

최윤규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김수지 (문화관광연구부 전문연구원)

2016 전북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



Jeonbuk
Institute

정책브리프 2016년 12월 28일 vol.13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2016 전북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

1. 조사목적과 개요.....	04
1) 조사목적.....	04
2) 조사내용.....	04
2. 인구통계학적 특성	05
3. 주요 조사결과	06
1) 건강에 대한 인식	06
2) 생활체육 참여 정도.....	08
3) 생활체육 참여 종목.....	10
4) 생활체육 이용시설.....	10
5) 생활체육 참여 및 변동 이유	12
6) 생활체육 관련 강습 경험 및 욕구	13
7) 생활체육 정보 획득경로(복수응답)	14

SUMMARY

2016 전북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

- 조사대상: 2016년 7월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10세 이상 2,610명
- 조사시기: 2016년 7월 27일 ~ 8월 5일(10일 간)
-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1:1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 표본추출 방법: 14개 시·군 10세 이상 인구 제공근 비례배분법
- 조사내용: 건강에 대한 인식, 생활체육 참여 정도, 생활체육 참여 종목, 생활체육 이용시설, 생활체육 참여 및 변동 이유, 생활체육 관련 경험 및 욕구, 생활체육 정보 획득경로

- 요약 및 함의 -

-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82.7%)이라고 인식하고, 5명(54.0%)이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함
- 도민들은 생활체육활동으로 '걷기'와 '보디빌딩', '축구', '수영'등에 주로 참여하며, 참여 공간은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높음
- 더불어 도민들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에 '시간'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 건강에 대한 인식과 체육활동 참여를 종합하면, 고학력·고소득·화이트 칼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 역으로 저학력, 저소득, 블루 칼라들은 생활체육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함
 - 따라서 사회자본이 낮은 생활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또한 생활체육 소외계층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생활체육 소외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강화가 필요함
- 도민들이 가장 많이 강습을 받았고, 원하는 종목은 '수영'임
 - 2015년 현재 도내 신고된 수영장은 25개에 불과함. 이는 전국 607개의 4.1%임.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영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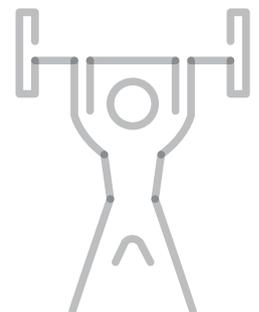
1. 조사목적과 개요

1) 조사목적

- 조사는 전북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여 도내에 부합하는 체육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2) 조사내용

-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의 1:1 대인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되, 응답자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자기기입식과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원이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을 기입하는 방식을 병행
- 조사대상 : 2016년 7월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2,610명
- 모집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따라 만 10세 이상 도민
- 조사시기 : 2016년 7월 27일 ~ 8월 5일(10일 간)
-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 1:1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 : 2015년 7월 행정자치부 공고 14개 시·군 인구
- 표본추출 방법 : 14개 시·군 10세 이상 인구 제공급 비례배분법
-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인구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급 비례배분법 적용



2.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1〉 생활체육 실태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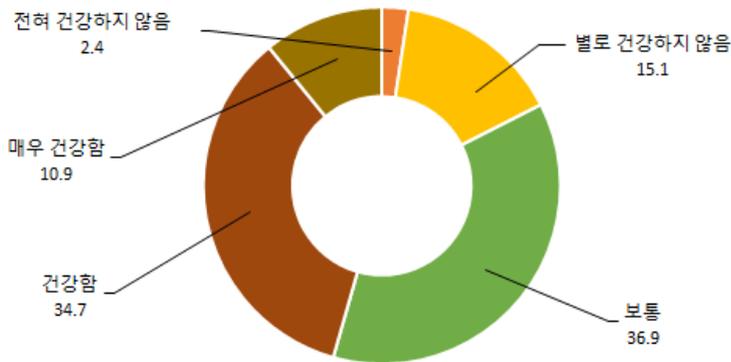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301	49.8	직업	관리직	65	2.5	
	여자	1,309	50.2		전문직	164	6.4	
	전체	2,610	100.0		사무직	288	11.3	
연령대	10대	276	10.6		기능직	80	3.1	
	20대	295	11.3		판매직	147	5.8	
	30대	330	12.6		농림어업	307	12.0	
	40대	454	17.4		서비스직	210	8.2	
	50대	474	18.2		단순노무	125	4.9	
	60대	354	13.6		장치/기계/조립	79	3.1	
	70대 이상	427	16.4		주부	553	21.7	
	전체	2,610	100.0		학생	411	16.1	
	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이하	813		33.0	기타	124	4.9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877		35.6	전체	2,553	100.0
대학교 재학 및 졸업		698	28.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22	17.0	
대학원 재학이상		74	3.0		100만원대	511	20.5	
전체		2,462	100.0		200만원대	597	24.0	
					300만원대	429	17.2	
					400만원대	287	11.5	
			500만원 이상		243	9.8		
			전체		2,489	100.0		

3. 주요 조사결과

1) 건강에 대한 인식

-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8명이 현재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함
 - 2016년 전북도민의 건강 상태 인식은 '매우 건강함' 10.9%, '건강함' 34.7%, '보통' 36.9%, '별로 건강하지 않음' 15.1%, '전혀 건강하지 않음' 2.4%로 나타남
 - '건강하다'는 응답(매우 건강함 + 건강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5.6%로 나타남
 -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별로 건강하지 않음 + 전혀 건강하지 않음)은 17.5%로 조사됨



〈그림 1-1〉 건강에 대한 인식 (%)

- 건강인식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사회자본
 -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은 증가됨
 - 사회적 변인 가운데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사회적 변인 가운데 학력과 소득이 증가될수록 '건강하다'는 응답도 증가됨
 - 직업 가운데 학생이 대부분인 연령대가 낮은 학생을 제외하고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에서 '건강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음.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업인과 주부에서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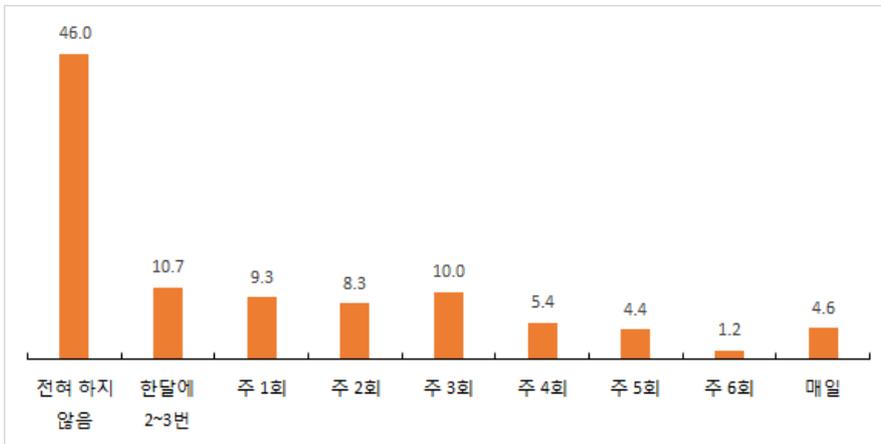
〈표 1-2〉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전체		2,606	17.5	36.9	45.6
성별	남성	1,297	13.0	33.2	53.9
	여성	1,309	22.1	40.6	37.4
연령	10대	274	2.9	23.0	74.1
	20대	295	4.4	33.2	62.4
	30대	330	10.0	36.7	53.3
	40대	453	10.8	43.0	46.1
	50대	473	14.4	43.8	41.9
	60대	354	23.2	38.1	38.7
	70세 이상	427	47.8	33.3	19.0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813	33.1	32.7	34.2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875	11.5	42.3	46.2
	대학교 재학 및 졸업	698	9.3	36.0	54.7
	대학원 재학이상	74	2.7	37.8	59.5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22	47.2	30.3	22.5
	100200만원 미만	509	16.7	41.5	41.8
	200300만원 미만	595	8.9	42.5	48.6
	300400만원 미만	429	8.9	37.1	54.1
	400500만원 미만	287	12.5	33.4	54.0
	500만원 이상	243	7.4	32.9	59.7
직업	관리, 전문, 사무직	516	7.9	39.5	52.5
	기술, 기능, 노무직	284	13.4	38.7	47.9
	서비스, 판매직	356	12.1	38.5	49.4
	농어업직	307	31.6	36.8	31.6
	주부	553	31.1	40.3	28.6
	학생	409	2.9	26.2	70.9
	기타	124	26.6	37.9	35.5

2) 생활체육 참여 정도

- 전북도민 가운데 절반 가량이 생활체육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 46.0%로 조사됨
 - 체육활동 참여자 가운데 '한 달에 2~3번'이 10.7%로 가장 많았음
 - 이 밖에 '일주일에 1번' 9.3%, '일주일에 2번' 8.3%, '일주일에 3번'이 10.0%, '일주일에 4번', 5.4%, '일주일에 5번' 4.4%, '일주일에 6번' 1.2%, '매일' 4.6%로 나타남



<그림 1-2> 체육활동 참여 정도 (%)

-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하지 않는 빈도를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하지 않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이 52.4%로 남성 39.6%보다 12.8% 높았음
 -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70세 이상에서 64.5%로 가장 높았고 60대는 52.4%로 두 번째로 조사됨. 30, 40, 50대는 40%대이고 10, 20대는 30%대임
- 사회적 변인 가운데 저학력, 저소득, 농어업인 계층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 사회적 변인 가운데 학력과 소득이 감소될수록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증가했음
 - 직업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농어업인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에서 가장 낮았음



〈표 1-3〉 체육활동 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음	한 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2번	일주일 3번	일주일 4번	일주일 5번	일주일 6번	매일
전체		2,590	46.0	10.7	9.3	8.3	10.0	5.4	4.4	1.2	4.6
성별	남성	1,288	39.6	12.8	11.5	9.7	9.0	5.6	4.7	1.5	5.6
	여성	1,302	52.4	8.7	7.1	7.0	11.0	5.3	4.0	0.8	3.7
연령	10대	273	39.6	10.3	12.1	9.2	9.9	2.9	9.2	2.6	4.4
	20대	289	34.6	15.6	9.7	10.4	10.0	8.0	5.5	1.4	4.8
	30대	328	43.0	13.4	11.3	9.1	9.5	4.9	4.6	0.6	3.7
	40대	452	42.3	11.3	13.1	11.7	10.6	4.9	3.5	0.7	2.0
	50대	470	41.1	12.1	10.2	6.8	12.1	6.8	4.5	1.3	5.1
	60대	353	52.4	7.9	7.4	4.8	9.3	5.9	3.4	1.4	7.4
	70세 이상	425	64.5	5.9	2.4	6.8	8.0	4.5	1.9	0.7	5.4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811	60.7	7.2	6.3	5.7	7.9	3.0	3.3	0.7	5.3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871	42.8	11.6	10.6	7.9	11.6	5.7	4.4	1.3	4.1
	대학교 재학 및 졸업	692	34.8	13.0	10.8	12.1	10.7	6.9	5.1	1.6	4.9
	대학원 재학이상	72	20.8	16.7	4.2	15.3	15.3	15.3	5.6	0.0	6.9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19	66.8	3.3	5.5	6.9	5.3	3.1	2.1	1.2	5.7
	100~200만원 미만	509	51.7	13.9	9.2	5.9	8.1	3.5	2.9	0.2	4.5
	200~300만원 미만	589	43.6	11.9	9.8	7.3	11.4	5.3	3.9	1.2	5.6
	300~400만원 미만	426	35.2	10.3	10.3	13.4	12.2	6.1	7.7	1.2	3.5
	400~500만원 미만	286	35.7	11.2	8.4	8.0	13.3	9.8	6.6	2.1	4.9
	500만원 이상	241	34.9	14.1	10.0	10.8	12.9	7.1	4.6	2.1	3.7
직업	관리, 전문, 사무직	510	31.0	14.1	13.3	11.6	12.5	8.2	4.3	1.6	3.3
	기술, 기능, 노무직	282	46.5	11.7	12.8	7.1	8.5	4.6	2.5	0.4	6.0
	서비스, 판매직	356	42.7	13.2	7.6	8.1	10.7	5.3	5.1	1.1	6.2
	농어업직	304	65.5	7.6	9.2	6.6	5.9	1.3	0.7	0.3	3.0
	주부	552	57.6	6.5	4.9	7.2	10.1	5.6	4.5	0.5	2.9
	학생	408	39.0	11.8	11.5	9.1	10.0	3.9	7.4	2.5	4.9
	기타	122	43.4	8.2	1.6	4.1	10.7	10.7	5.7	1.6	13.9

○ 생활체육 비참여 이유(복수응답)

-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들에서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음
-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모든 계층에서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이 가장 많았음
- 다만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67.9%로 가장 높았음

3) 생활체육 참여 종목

○ 생활체육 참여자의 운동종목을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걷기'와 '보디빌딩', '축구', '수영'이 상위 종목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걷기' 15.6%, '보디빌딩' 12.0%, '축구' 11.3%, '수영' 10.2%, '등산' 9.2%, '요가' 7.5%, '배드민턴' 7.4%, '탁구' 6.7%, '골프' 5.0%, '농구' 4.4%, '자전거' 4.4%, '육상' 3.8%, '테니스' 3.8%, '체조' 2.5%, '야구' 2.1%, '태권도' 2.0%, '게이트볼' 1.8%, '족구' 1.7%, '줄넘기' 1.7%, '볼링' 1.6%, '댄스스포츠' 1.5%, '에어로빅' 1.4%, '당구' 1.4% 순으로 나타남. 나머지 종목은 1.0% 미만임

○ 참여 운동종목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회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남성은 '축구', 여성은 '걷기'를 가장 많이 참여함

○ 연령별 참여 운동종목에서 10대는 '축구'에 주로 참여했고, 20~30대 청년층은 '근육 운동'을 가장 많이 했음. 50대 이상 장년층은 '유산소 운동'을 주로 했음

○ 어릴수록 동적인 운동에 많이 참여한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정적인 운동에 참여함

- 10대는 '축구', 20대와 30대 '보디빌딩', 40대 '걷기'와 '수영', 50대 '등산', 60대와 70대 이상은 '걷기'에 가장 많이 참여했음

○ 학력과 소득에서 저학력과 저소득 계층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걷기'에 많이 참여한 반면, 고학력과 고소득 계층은 많은 비용을 요구되는 '골프'를 많이 즐김

-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은 '걷기',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은 '보디빌딩', 대학원 재학 이상은 '골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음
-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은 '걷기', 200~300만원은 '축구', 300~400만원은 '보디빌딩', 400~500만원 소득층 '걷기', 500만원 이상 소득층 '골프'에 가장 많이 참여함

4) 생활체육 이용시설

○ 생활체육 이용시설을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전북도민들은 민간시설보다 공공시설에서 더 많이 운동을 함

- 성별과 학력별, 가구소득별, 연령별, 직업별의 모든 계층에서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높음



〈표 1-4〉 참여집단의 이용 체육시설(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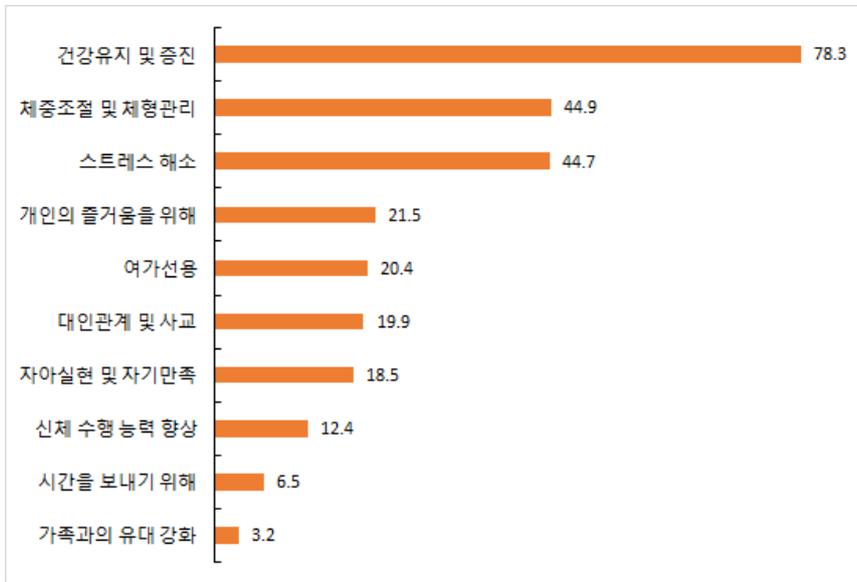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공공시설	민간시설	해당 없음
전체		1,508	77.8	42.1	6.7
성별	남성	677	76.1	45.1	7.2
	여성	514	80.2	38.1	6.0
연령	10대	149	81.9	38.9	6.0
	20대	178	79.2	48.9	8.4
	30대	162	71.6	55.6	6.8
	40대	222	73.9	45.5	6.8
	50대	221	66.5	47.5	4.5
	60대	131	80.9	35.1	6.1
	70세 이상	128	102.3	10.9	9.4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271	86.3	24.0	9.6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412	72.8	42.0	8.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90	76.2	52.6	3.8
	대학원 재학이상	54	79.6	55.6	3.7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6	100.9	10.4	10.4
	100~200만원 미만	202	81.2	28.2	11.4
	200~300만원 미만	283	73.9	46.3	4.2
	300~400만원 미만	237	78.5	46.8	3.0
	400~500만원 미만	163	77.9	53.4	3.1
	500만원 이상	147	66.0	64.6	0.7
직업	관리, 전문, 사무직	316	76.6	48.1	5.4
	기술, 기능, 노무직	117	73.5	44.4	7.7
	서비스, 판매직	164	77.4	47.6	3.7
	농어업직	94	74.5	25.5	12.8
	주부	189	81.5	32.8	6.9
	학생	228	77.6	46.9	8.8
	기타	55	89.1	36.4	3.6

5) 생활체육 참여 및 변동 이유

○ 전북도민들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주로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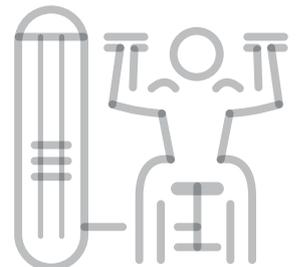
- 생활체육 참여 이유 가운데 '건강유지 및 증진'이 78.3%로 가장 많음. 이어서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44.9%, '스트레스 해소' 44.7%,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21.5%, '여가선용' 20.4%, '대인관계 및 사고' 19.9%, '자아실현 및 자기만족' 18.5%, '신체 수행 능력 향상' 12.4%, '시간을 보내기 위해' 6.5%, '가족과의 유대 관계' 3.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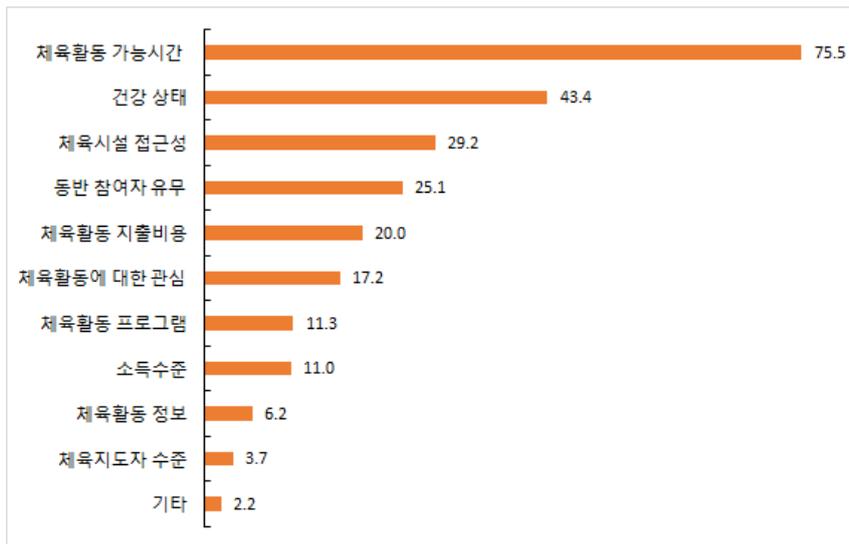


〈그림1-3〉 참여집단의 체육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

○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회변인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 이유 가운데 모든 계층에서 '건강유지 및 증진'이 가장 높았음

- 전북도민들은 주로 시간 때문에 생활체육 활동이 변화됨
- 생활체육 참여 변동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체육활동 가능시간'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 상태'가 43.4%로 두 번째를 차지함.
- 그 밖에 '체육시설 접근성' 29.2%, '동반 참여자 유무' 25.1%, '체육활동 지출비용' 20.0%,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17.2%, '체육활동 프로그램' 11.3%, '소득수준' 11.0%, '체육활동 정보' 6.2%, '체육지도자 수준' 3.7%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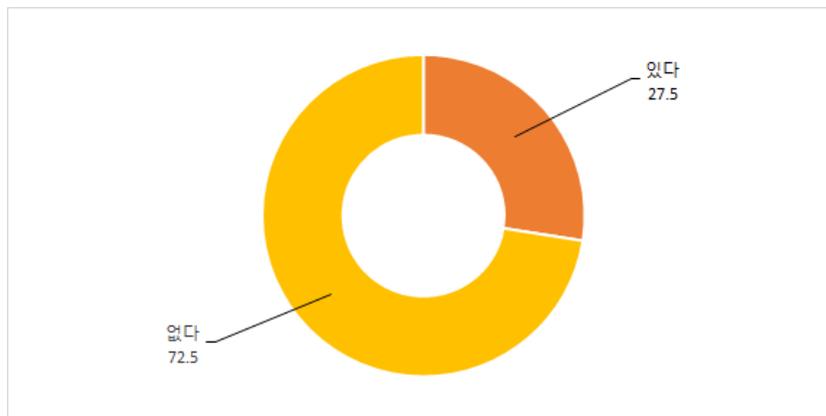


〈그림1-4〉 참여집단의 체육활동 증감 이유(복수응답) (%)

- 생활체육 참여 변동 이유를 인구통계학적과 사회변인의 모든 계층에서 '체육활동 가능시간'이 가장 높았음
- 생활체육 참여 및 변동은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6) 생활체육 관련 강습 경험 및 욕구

- 도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생활체육 관련 강습을 받아본 경험이 없음
- 학교 체육을 제외한 생활체육 관련 강습 경험을 알아본 결과 '있다'가 27.5%로 없다 72.5%에 약 3분의 1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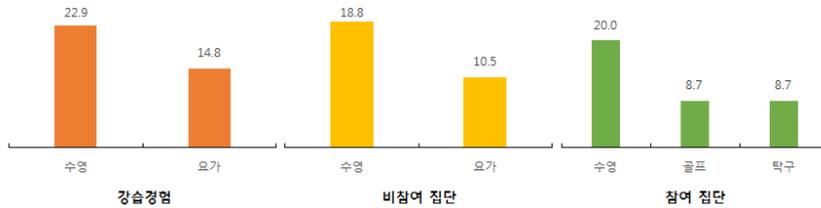
〈그림1-5〉 체육 관련 강습 경험 유무 (%)

○ 과거 강습을 받은 운동 종목을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수영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요가가 두 번째를 차지함

- 수영 22.9%, '요가' 14.8%, '배드민턴' 12.5%, '탁구' 9.8%, '테니스' 7.3%, '골프' 6.3%, '보디빌딩' 6.2%, '태권도' 5.6%, '댄스스포츠' 4.9%, '체조' 4.6%, '에어로빅' 3.9%, '축구' 3.9%, '볼링' 3.0%, '무도' 2.0%, '야구' 1.7%, '검도' 1.6%, '게이트볼' 1.4%, '농구' 1.2%, '배구' 1.2%, '스쿼시' 1.2% 순임

○ 강습 희망 운동종목

- 생활체육 비참여 집단의 강습 희망 운동종목은 '수영'이 가장 많았고 '요가'가 두 번째를 차지함
 - 생활체육 참여 집단의 강습 희망 종목 역시 '수영'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는 '골프와 탁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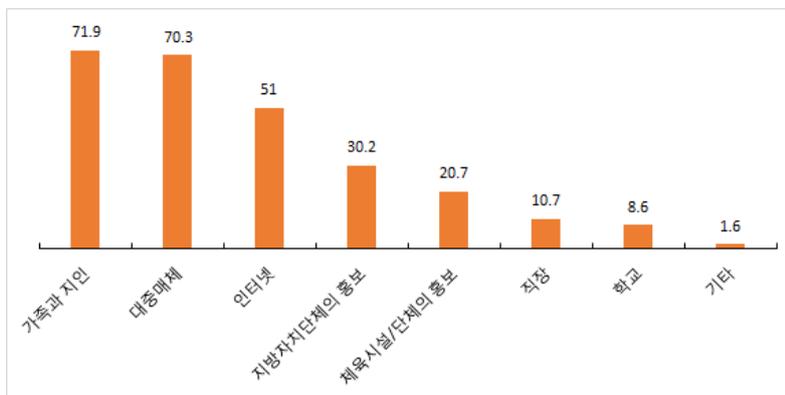
<그림1-6> 수영에 대한 욕구

7) 생활체육 정보 획득경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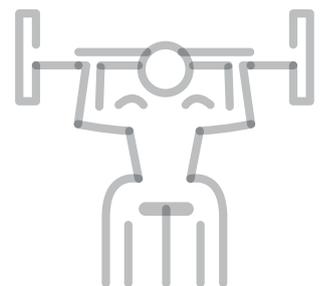
○ 도민들은 주로 인적 네트워크인 휴민트와 대중매체를 통해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음

- 생활체육 관련 정보수집 경로를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가족과 지인', '대중매체'가 각각 71.9%와 70.3%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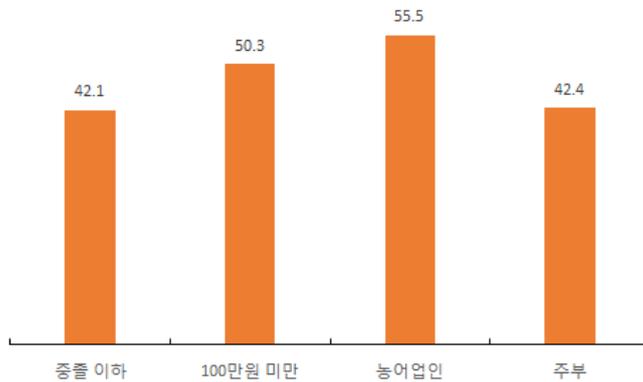
- 이어서 '인터넷' 51.0%,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30.2%, '체육시설/단체의 홍보' 20.7%, '직장' 10.7%, '학교' 8.6%, '기타' 1.6% 순임



<그림1-7> 생활체육 정보 획득경로(복수응답) (%)



- 종합적인 생활체육 정보 획득경로에서 4위에 그쳤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는 생활체육 소외계층에서 주요한 정보 획득경로임
- 생활체육 소외계층은 저학력, 저소득, 농어업인과 주부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지자체 홍보'를 통해 생활체육 정보를 더 많이 습득했음
 - '지자체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정보 획득은 중졸 이하 학력층 42.1%, 100만원 미만 소득층 50.3%, 농어업인 55.5%, 주부 42.4%로 높았음



〈그림1-8〉 소외계층, 지자체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정보 획득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썈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